

한국의 목록규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1954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aloging Rules in Korea

- Before 1954 -

도 태 현 (Tae-Hyeon Doh)**

〈 목 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머리말 II. 목록규칙 발전의 시대구분 III.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록의 유형 2. 편성체계 3. 서지기술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V.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록규칙의 사용 2. 『新書部分類目錄』 편찬 3. 『朝鮮東書編目規則』 제정 V. 맺는 말 |
|--|---|

초 록

한국의 목록규칙 발전과정은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고려시대부터 1923년경까지),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1923년경부터 1954년 이전까지), 국제 표준화기(1954년 이후부터), 자동화목록기(1980년 이후부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와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를 중심으로 목록의 구성이나 표 목선정과 관계되는 목록의 편성체계, 그리고 문헌의 식별과 관계되는 서지기술체계 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aloging rule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traditional single-entry cataloging, the introduction period of western cataloging rules, the period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the period of MARC.

This study tries to review catalog organization relating to catalog structure and choice of headings, and rules for description relating to identifying items from the period of traditional single-entry cataloging to the introduction period of western cataloging rules in Korea.

* 본 논문은 동의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I. 머리말

역사 연구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자체로 연구 할 만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있게 한 기반이 되었으며 동일한 이치로 현재적 상황은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를 '단절의 시대'라 표현하고 그 특성을 ①오늘의 문제에 대해 역사는 무의미하며, ②지금까지의 역사관은 이미 오늘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③지금까지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의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④현재를 보는 시각은 과거 아닌 '미래로부터의 도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¹⁾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에서도 '역사적 단절'의 경향을 볼 수 있다. 비역사적 상태의 원인을 '현재를 보는 시각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부터의 도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대로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해 가는 도서관 환경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예측이 난무할 뿐, 역사 속의 사실과 경험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그리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작업은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심우준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에서 개설류나 통계적 방법에 의한 이론의 구축 내지 기계화 처리에 주안을 두면 도서관의 기능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특히 목록 분야에서 고도의 문명에서 산출되는 홍수와 같은 자료를 어떻게 통정할 것인가 하는 데만 신경을 씌우므로 학문 자체가 최근에 생겨난 것처럼 착각하고 과거를 단절해 버린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²⁾고 하였다.

과거는 현재를 통하여 미래로 이어지고 동시에 미래는 현재를 통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관계는 불가분의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미래 예측과 대비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도서관사의 한 부분으로서 목록규칙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특히 목록업무에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이룸하여 '미래로부터의 도전'에만 집착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문제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기 쉬운 환경에 즈음하여 목록규칙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보다 나은 목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朴成壽, 『歷史學概論』, (서울: 三英社, 1977), 24쪽.

2) 沈隅俊 「2000年前的 編目者들의 役割: 우리는 무턱대고 過去를 버려야 하나?」, <國會圖書館報>, 第17卷 第2號(1980. 3.4), 78쪽.

본 연구의 전체적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목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목록규칙들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더불어 현재적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가 광범하여 몇 차례로 분절하여 발표하도록 하며 이 논문은 그 첫 번째로 고재창이 편찬한 『韓銀圖書編目法』이 발간된 1954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주로 목록의 구성이나 표목선정과 관계되는 편성체계, 그리고 문헌의 식별기능과 관계되는 기술규칙 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목록규칙(cataloging rules, cataloging code)이란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통일을 기하기 위해 도서의 목록 기술형식을 정하고, 일관된 목록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술요소와 그 배열수단을 정해놓은 규칙. 도서관에서는 목록작성원칙과 방법을 목록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기준 자체를 목록규칙이라고 한다”³⁾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통상의 정의는 도서관 장서의 편목을 위한 현대적 의미의 성문화된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문화된 규칙이 없었던 때에도 책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목록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목록의 기입과 배열에는 그 나름의 규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목록규칙의 기원은 목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라는 용어는 성문화된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목록편찬에 관례적으로 적용되었던 원칙에서 성문화된 규칙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Ⅱ. 목록규칙 변천의 시대구분

일반 역사에서 시대별 특성을 기준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와 같이 구분하였듯이 목록의 발달과정도 그 공통적 특성에 따라 시대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리스(D. M. Norris)는 목록의 역사를 제1단계 기원전부터 기원 후 1100년까지(고대의 목록시대), 제2단계를 1100년부터 1400년까지(중세 수도원도서관목록), 제3단계 1400년부터 1700년까지(대학 또는 학술기관의 목록), 제4단계 1700년 이후(현대목록의 전기)로 구분하였다.⁴⁾

그리고 헨슨(Eugene R. Hanson)과 데일리(Jay E. Daily)는 목록과 목록법의 발전과정을 다

3)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126쪽.

4) 志村尙夫 『目録學序説: 原理と事例からのアプローチ』, 補訂版, (東京: 學藝圖書, 昭和56(1981)), 78쪽.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⁵⁾

제1단계 재고목록의 시대(Age of Inventory)

기원전 칼리마쿠스의 피나크스 목록으로부터 1600년경까지

제2단계 검색목록의 시대(Age of finding list)

1600년경부터 1900년 전후까지

제3단계 자주성과 재평가의 시대(Age of Sovereignty and Scrutiny)

20세기 전 후반부를 통틀어

노리스의 시대구분이나 헨슨과 데일리의 시대구분이 현대적 개념의 목록까지 포함하고는 있지만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목록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들의 시대구분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김창하는 현대목록법 이후에 목록의 국제화와 기계화 시대(1968년-1990년대 초), 인터넷 목록과 미래 목록법 시대(1990년대 중반 이후)를 추가하여 6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⁶⁾

이와 같은 목록법 변천과정의 시대구분들은 모두 서양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항 이전까지 중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한 것 외에는 서구와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던 우리 나라 실정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개념의 도서관 설립이나 목록규칙 사용이 구한말 서구 문물의 도입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적어도 1900년대 이전에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목록들은 위에서 열거한 시대구분들과는 다른 변천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후에도 당분간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미비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정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서양이 겪은 목록규칙 변천과정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시대구분들은 목록의 편성체계나 서지기술체계, 즉 목록규칙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록규칙 변천과정을 우리 나라 고유의 사정에 따라 새롭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성춘은 우리 나라 목록학의 변천과정을 일반 역사의 시대구분에 맞추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작성되었던 목록들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특성을 개관한 바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시대구분은 일반 역사의 시대구분에 편승한 것이며 목록이 갖는 공통적 특성을 기준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 연구는 일제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하

5) Eugene R. Hanson, Jay E. Daily, "Catalog and Cataloging", In Allen Kent and Harold Lancour e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 4, (New York : Marcel Dekker, c1970), pp. 242-305.

6) 김창하, 「목록법 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8, 14쪽.

7) 李聖春, 「韓國 目錄學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1971.

고 있어 그 후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 변화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전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목록에서부터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에 이르기까지 변천과정을 시기별 공통적 특성에 근거하여 시대구분 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례가 없었고 사료 또한 충분하지 못한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후 계속적으로 검토, 보완되어야 함을 미리 밝혀둔다.

- ①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 : 고려시대부터 1923년경까지.
- ②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 : 1923년경부터 1954년 이전까지.
- ③ 국제 표준화기 : 1954년 이후부터
- ④ 자동화목록기 : 1980년 이후부터

우리 나라 목록의 역사적 기원을 찾기 위하여는 문헌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불행히도 고려시대 이전의 목록은 추측만 할 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현재까지는 고려시대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 편찬했던 『大藏目錄』이 최초의 목록으로 알려져 있다.⁸⁾

이후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⁹⁾이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체계나 형식을 달리하는 수다한 목록들이 편찬되었다. 이 목록들은 그 편찬시기나 목적, 수록범위, 대상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체계나 배열체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명을 표목으로 한 단일기입의 책자목록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즉 이 시기의 목록은 목록의 3대 기능¹⁰⁾ 중 검색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식별기능이나 재고확인(inventory)기능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목록은 “여러 책을 분류하고 이동을 구분하며, 대의를 밝히고 동류를 소통시키며 학술을 분석하고 원류를 탐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전문학술”¹¹⁾이라는 동양적 목록학의 개념에 가깝게 만들어진 것과 서명, 권질, 저자

8) 鄭駉謨 『高麗佛典目錄研究』,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90), 28쪽.

9) 서양 문물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근대적 개념의 도서관이 설립되고 전통적 한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수입되거나 생산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소장한 도서관에서는 당시 서양, 특히 영미의 도서관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목록규칙을 도입하거나 영향을 입어 만들어진 규칙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록규칙은 전통적 한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신서(新書)의 목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목록의 기술 방식도 해제목록과 같이 서술적 방식이 아니고 서명, 저자, 출판사항 등의 서지기술사항을 정해진 형식과 순서에 따라 기술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복수기입의 편성 체계를 갖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 혹은 ‘서양식 목록규칙’이라 함은 이러한 개념으로 통용한다.

10) 목록의 기본적인 기능을 식별기능, 검색기능, 소재지시기능 등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金南碩 『資料目錄學』, 增補版 (大邱 : 啓明大學校出版部, 1985), 99-100쪽.

11) 許世瑛 編著, 『中國目錄學史』, (臺灣,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43(1954)), 4쪽, 鄭駉謨 『目錄組織論』, 改訂增補版 (서울 : 九美貿易, 1993), 11쪽에서 재인용.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등과 같은 서지기술사항들을 일정한 순서나 형식에 맞추어 간략하게 기술한 것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목록편찬은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도래되는 개화기 이후까지도 계속되었으나 개화기 이후에 편찬된 목록들, 특히 일제시대에 편찬된 목록류들은 서지기술사항의 내용과 기술의 양식이 더욱 정형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서의 정리를 위하여 카드를 사용한 흔적¹²⁾도 있어 서양식 목록규칙의 영향을 서서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 이전까지는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을 사용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된 1923년경까지를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로 구분한다.

이 시기에 편찬된 주요 목록들로는 고려시대의 『大藏目錄』, 『新編諸宗教藏總錄』 등의 불전목록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이후의 『攷事撮要』의 책판목록, 『海東文獻總錄』, 『燃藜室記述 文藝典故』, 『奎章總目』, 『鏤板考』, 『海東繹史 藝文志』,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帝室圖書目錄』, 『朝鮮圖書解題』,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古圖書目錄』(이하 『古圖書目錄』이라 함)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923년에 설립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카드목록을 사용하고, 복수기입에 의해 목록을 편성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¹³⁾ 조선총독부도서관 설립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제정된 목록규칙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목록규칙들은 일본의 개방과 더불어 도입된 서양식 목록규칙에 따라서 편찬된 것이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목록규칙이 간접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들 목록규칙의 기술내용이나 형식은 거의 영미계 목록규칙의 그것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기본표목의 문제에 있어서 서명기본기입과 같은 동양적 전통과 저자명기본기입과 같은 영미계 목록규칙의 특성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朝鮮東書編目規則』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때까지를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로 구분한다.

해방과 6.25 동란을 거친 후 서양으로부터 직접 도입된 목록규칙과 당시 국제적인 목록규칙 표준화 움직임에 영향을 입은 목록규칙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파니찌(Anthony Panizzi)의 『대영박물관목록규칙』은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확립하였으

12) 1912년 조선총독부 참서관실에서 규장각도서를 이관 받아 정리할 때 각책의 표지에 붙었던 도서정리표에는 '圖書番號, 카드番號, 一部冊數, 書架番號, 朝鮮總督府' 등 5개 항목을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도서의 정리를 위하여 카드를 사용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132쪽; 田鳳德,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由來」,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京城: 朝鮮總督府, 1921; 서울: 亞細亞文化社(영인)), 37쪽 참고)

13)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 본관의 준공 당시 각종의 배치를 보면 2층에 '목록실'을 따로 두도록(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3), 157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이미 카드목록을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도서정리약도표(위의 책, 191쪽)를 볼 때 복수기입의 목록을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며¹⁴⁾ 이후 미국도서관협회와 영국도서관협회와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목록규칙 AA Code 등 영미계 목록규칙들은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지향하였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 의해 1954년 이후 국제적 목록규칙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실로 국제목록원칙회의가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성명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성명의 '표목과 기입에 관한 원칙'의 골자는 저자명 아래에 기입을 만들고 이들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서명을 기입하도록 한 것¹⁵⁾이었다.

당시 목록규칙의 국제적 추세였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도입한 우리 나라 최초의 목록규칙은 1954년에 편찬된 고재창의 『韓銀圖書編目法』이며, 1955년 박희영의 『東書編目規程』(草)도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후 1964년에 발행된 『韓國目錄規則』 초판도 그 서문에서 “국제목록회의에서 결정된 여러 원칙은 우리들 초고 작성에 전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원칙을 충분히 참작하기로 결의하였다”¹⁶⁾고 밝혔듯이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채택하여 제정된 목록규칙이다. 목록원칙의 국제적 흐름이었던 저자명기본기입원칙¹⁷⁾을 채택하기 시작한 때부터 국제 표준화기로 구분한다.

1963년 미국의회도서관에 제출된 길버트 킹(Gilbert W. King)의 보고서 *Automation and Library of Congress*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목록 자동화에 관한 연구는 기계가독목록(MARC)포맷을 제정하고 이 포맷으로 작성된 목록레코드를 전자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목록자동화는 국립중앙도서관 외에서도 산발적으로 시도된 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980년 2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단행본실험용포맷을 개발한 때를 기점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록의 자동화와 더불어 목록규칙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를 구분하여 자동화목록기로 한다.

14) 장일세, 「영미목록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도서관》, v.27, n.1(1972. 11), 4쪽.

15) 國際圖書館協會聯盟, 「國際目錄原則會議豫備公式報告」,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288쪽.

16)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서울: 同協會, 1964), ii 쪽.

17) 근래에 서명을 기술사항의 첫머리에 기술한 단위카드(unit card)를 사용하여 기본표목과 부표목 구별없이 필요한 접근점을 부여하는 기술단위방식의 효용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이 목록의 국제적 추세였다.

III.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

(고려시대부터 1923년경까지)

현재까지 우리 나라 최초의 목록으로 알려진 고려시대의 불전목록으로부터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되어 현대적 목록규칙이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의 목록은 주로 책자형 단일기입목록이었다.

1. 목록의 유형

이 시기에 편찬된 주요 목록들을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록 대상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 ① 누판목록(책판목록) : 인쇄를 위하여 새긴 목판의 목록으로 고려시대의 『大藏目錄』이나 『新編諸宗教藏總錄』과 같은 불전목록, 조선시대에 간행된 『攷事撮要』의 책판목록, 『鏤板考』와 같은 것들이 있다.
- ② 서책 목록 : 필사되거나 인쇄된 서책에 관한 목록으로 누판목록 외의 대부분의 목록들은 여기에 속한다.

2) 목록의 배열체계에 따라서

- ① 사분법 목록 :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분류법에 의해 배열한 목록으로서 이 시기의 많은 목록들은 사부분류법에 의해 배열되었다.
- ② 비사분법 목록 : 불전의 三藏 분류법이나 사부분류법을 개수한 분류법에 의해 배열된 목록들이 있으며 특히 개화기 이후에는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새로운 학문의 영향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3) 기술의 형식에 따라서

- ①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적으로 기술한 해제목록(이하 '해제목록'이라고 함)
- ② 서지기술사항들을 정해진 형식과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기입한 목록(이하 '간략기입 목록'¹⁸⁾이라고 함)

18) '간략기입'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기술목록에서 기술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을 말

2. 편성체계

이시기에 편찬된 목록은 단일기입의 책자형 목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제시대에 편찬된 『朝鮮圖書解題』, 『古圖書目錄』에 이르기까지도 목록이 문헌의 검색도구로서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동양적 목록학의 개념에 가깝게, 혹은 장서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들로서 복수기입이나 검색기능을 갖도록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朝鮮圖書解題』 1915년 판¹⁹⁾은 경·사·자·집의 사부로 분류하여 목록하고 여기에 오십음순의 색인을 첨부하였으며, 1919년의 증보판은 일본음 색인, 왕호표, 편저자 성별표, 귀중도서 사진판 등을 부록으로 붙이고 해제한 후 각 도서에는 규장각도서의 도서번호를 기입하고 있어서 검출의 편이를 도모하고 있다.²⁰⁾ 이는 색인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부분류순이나 연대순 외에 서명의 자모순에 의해서도 도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단일기입의 목록에 대하여 오늘날과 같이 기입의 종류나 그에 따른 저자목록, 서명목록, 주제목록 등의 편성체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록 단일기입의 목록이기는 하지만 목록레코드의 규칙적 배열체계, 즉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들 목록의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²¹⁾ 여기서는 사부분류법에 의한 목록과 비사분류체계의 목록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해당하는 목록의 서명만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부분류법에 의한 목록

『奎章總目』, 『鏤板考』, 『海東釋史 藝文志』, 『帝室圖書目錄』, 『朝鮮古書目錄』, 『朝鮮圖書解題』, 『古圖書目錄』 등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책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기술한 해제목록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서명, 저자 등의 서지기술사항을 정해진 형태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 시기의 목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19)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總督府, 1915; 부산: 민족문화, 1993(영인))

20) 田鳳德, 앞의 글, 38쪽.

21) 이재철의 연구(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研究: 朝鮮後期の 四部分類法考」, 《省谷論叢》, 7輯(1976), 580-598쪽), 송정숙의 연구(宋靜淑, 「朝鮮朝後期資料組織의 樣相」, 《韓國文學論叢》, 8,9 합집(1986, 12), 11-30쪽.) 등과 『鏤板考』나 『海東釋史 藝文志』 등과 같은 개별 목록들에 대한 서지적 연구(金允植, 『鏤板考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 成均館大學校, 1978; 金種天, 『海東釋史藝文志研究』, 석사학위논문 - 中央大學校, 1980 등)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 비사분법체계의 목록

- 고려시대의 불전 목록 : 『初雕大藏目錄』, 『新編諸宗教藏總錄』, 『再雕大藏目錄』
- 기타 비사분법체계의 목록 :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弘齋全書』의 「羣書標記」, 『海東文獻總錄』, 『增訂文獻備考 藝文考』, 『燃藜室記述 文藝典故』,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學部編輯局書冊目錄』 등.

일반 문헌에 대한 목록은 『攷事撮要』의 책판목록이나 『弘齋全書』의 「羣書標記」 등 그 편찬의 목적이나 목록의 수록 범위가 특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법을 근간으로 하여 편찬된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의 불전목록들은 그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불교의 전통적 분류체계인 經律論의 三藏과 大乘 小乘으로 구분원리를 삼은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²²⁾

사분법의 주류구분이라 할 수 있는 경·사·자·집 이하의 세구분(細區分)에서는 목록들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구분에 대한 확정된 기준이 없었던 시기에 편찬자가 전례를 참고하고 목록 편찬의 동기, 문헌의 분포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목록 중 정확하게 경·사·자·집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들조차도 『海東文獻總錄』, 『增訂文獻備考 藝文考』, 『燃藜室記述 文藝典故』,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등 대부분은 사분법을 일부 개수한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海東文獻總錄』은 御製나 諸家詩文集(集部)을 앞세운 외에 經書類, 史記類, 諸家類(兵政類, 法典類, 醫藥類, 農桑類 등) 등 사부분류법의 분류항목으로 군침함으로써 사부분류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서구문물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學部編輯局書冊目錄』과 같은 목록에는 서양 학문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주제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²³⁾ 이로 미루어 볼 때 서양의 새로운 학문의 소개와 도서의 수입은 전통적 사부분류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鄭駭謨, 「高麗佛典目錄研究」, 앞의 책, 117-118쪽;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 延世大學校, 1982, 56-128쪽.

23) 「學部編輯局書冊目錄」은 御製, 御筆, 陵寢 及 御用文字, 御書部, 內閣 及 政廳故事를 머리에 두고 그 외 經書部, 歷史部, 地理部, 天文學, 政治部, 法律部, 數學部(算學部), 理化學部, 植物部, 讀本 及 教科(雜)部, 博物學部, 農商工學部, 礦學部, 動物學部, 心理學部, 生理醫學部, 修身學部, 子集部, 字書部, 叢書部 등 21부로 구분되어 있다. 南權熙, 「學部編輯局書冊目錄考: 西洋文物的 流入이 分類體系에 미친 影響」, 《社會科學研究》, (慶北大學校), v. 5(1989), 7쪽.

3. 서지기술체계

해제목록의 서지기술체계와 간략기입목록의 서지기술체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다음과 같다.

1) 해제목록의 서지기술체계

해제목록의 서술적 설명 속에는 오늘날 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지기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제의 형식을 분석하여 어떤 서지기술사항과 순서가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지기술체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서지기술의 원칙

『奎章總目』의 편찬자로 알려진 서호수(徐浩修)는 “命原任提學徐命膺撰奎章總目”(원임 제학 서명응에게 규장총목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이라는 『實錄』(正祖 5(1781)년 2월)의 기록 때문에 『奎章總目』의 편찬자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한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이며 『鏤板考』의 편찬자인 서유구(徐有渠)는 서호수의 아들이다. 이들 삼대는 조선 후기 목록학의 일가를 이루었으며 이들의 손을 거쳐 편찬된 『奎章總目』, 『鏤板考』 등은 이 시기 목록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奎章總目』과 『鏤板考』의 서두에는 서지기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목록의 기술규칙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목록규칙의 기원을 찾는다면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목록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서지기술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奎章總目』의 범례 :

凡各書之下必標其撰人姓氏及所著義例 或節取序跋而見其規模之概略 … 又或以簡帙之廢興 俾資其沿革之考據 …²⁴⁾

< 무릇 각 책 아래에는 반드시 그 편찬자의 성명과 지은바 의례를 표시하고, 혹 서문이 나 발문을 절취하여 그 규모의 개략을 밝히거나 … 때로는 간질의 폐흥으로써 그 연혁의 고증 자료로 삼았다 … >

『鏤板考』의 범례 :

每書之左必標其撰人爵里 而或節取序跋 或援引評議 以見其義例之大略得失 又或誌其刊刻之歲月 俾資乎沿革之考據 …²⁵⁾

24) 徐浩修, 『奎章總目』(縮小影印), 『奎章閣』 4, (서울 : 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102쪽.

< 각 책마다 좌편에는 편찬자의 벼슬과 향리를 표시하였다. 때로는 서문과 발문을 절취하거나 평척을 인용하여 그 의례의 대략과 득실을 밝혔다. 또 때로는 그 간행과 판각의 시기를 표시하여 연혁의 고증 자료로 삼았다 ... >

『海東文獻總錄』의 서문 :

凡論人物者必須先器識以後文藝 論述作者必須先行跡以後文章²⁶⁾

< 무릇 인물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량과 식견을 먼저 파악한 후 문예를 논해야 하고, 작자는 반드시 그 행적을 먼저 파악한 후 문장을 논술해야 한다 >

『奎章總目』이나 『鏤板考』의 범례에서는 기술의 원칙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두 목록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유사함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기술의 원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지기술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매 책의 해제에는 서명이 표출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둘째, 각 서명의 아래에는 편찬자를 밝히되 편찬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벼슬, 향리 등의 부가정보를 수록한다.

셋째, 내용의 개략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넷째, 권질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다섯째, 간행과 판각의 시기를 밝힘으로써 책의 연혁을 알게 한다.

『海東文獻總錄』에서는 해제의 규칙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저작자에 대한 이해나 기술이 대단히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2) 해제의 예를 통해 본 서지기술사항

이 시기에 편찬된 주요 해제목록들의 서지기술 예와 특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奎章總目』의 예

歷代名臣奏議 五十本

明永樂中黃淮楊士奇等奉勅編 自商周迄於宋元分六十四門爲三百五十卷 今本多加刪節又或有載其目而闕其辭者吳郡陳仁錫所定也²⁷⁾

25) 徐有渠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影印), 鄭亨愚, 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911-912 쪽.

26) 金佺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영인), 1969), 4쪽.

27) 徐浩修, 앞의 책, 254쪽.

< 역대명신주의 50본

명 영락 연간에 황희, 양사기 등이 칙명을 받아 편하였다. 상, 주로부터 송, 원에 이르기까지 64부문으로 나누고 350권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책에는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잘라내었으며, 어떤 것은 그 제목만 싣고 내용은 빠진 경우가 있는데 오군의 진인석이 결정하는 것이다 >

『鏤板考』의 예

梅軒集六卷

李朝藝文館提學權遇撰, 近之弟也, 其文, 不逮近 … 集附行狀, 務安縣藏, 刑, 印紙, 六牒²⁸⁾

< 매헌집 6권

조선 예문관 제학 권우가 찬했다, 권근의 아우로서 그 문장이 권근에게는 못 미치나 … 매헌집에는 행장이 첨부되어 있다. 무안현 소장. 인지 6첩 >

『弘齋全書』의 「彙書標記」 예

增修無冤錄二卷, 諺解二卷, 刊本

… 惟王與所無冤錄一書 … 昔在世宗朝命崔致雲等撰註刊行, 逮我先王朝又命具宅奎因舊註而刊訛補漏 … 命刑曹判書徐有隣更加訂校繆諺爲解, 俾可一開卷瞭如付外閣活印頒行 … 右丙辰編²⁹⁾

< 증수무원록 2권, 언해 2권, 간본

… 단지 왕여가 편찬한 무원록 한 권뿐이었다 … 옛날 세종 임금께서 최치운 등에게 명하여 주석을 달아 간행하였고, 우리 선왕께서는 또 구택규에게 명하여 옛날 주석을 따르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빠진 것을 더하도록 하였다 … 형조판서 서유린에게 명하여 고치고 교정한 뒤 언문으로 풀어 책을 열면 즉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외각(外閣)에 보내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케했다 … 이상 병진년에 편찬 >

『海東繹史 藝文志』의 예

權近五經淺見錄

權氏近五經淺見錄佚(同上) …

按陽村集年譜曰洪武二十四年辛未三月公歸忠州陽村著易詩書春秋淺見錄又攷定禮經節次, 附

28) 徐有隣 앞의 책, 1082-1083 쪽.

29) 『弘齋全書』, 第五卷, (서울: 太學社(影印), 1986), 373-374 쪽. 『弘齋全書』의 「彙書標記」는 정조의 개인 저술이나 명찬서(命撰書)에 관한 목록으로서 그 배열체계는 연대순이어서 상고해 볼 만한 의미가 없으나 해제는 대단히 상세하여 당시의 서지기술체계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小學³⁰⁾

< 권근, 오경천견록

권근의 오경천견록은 없어졌다(위와 같은 책에서) ...

양촌집 연보에 따르면 홍무 이십년 신미 삼월에 공은 충주 양촌으로 돌아가서 역 시 서
춘추 천견록을 지었으며 또 예경의 절차를 상고하여 정했다. 소학이 첨부되어 있다 >

하나의 목록에서조차도 목록레코드의 상세한 정도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목록
에서는 서명을 표목으로 하여 권질에 관한 표시, 편찬자,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성서(成
書)의 과정, 간행의 시기 등 앞의 해제원칙에서 밝히고 있는 서지기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 서지기술법은 서명을 표목으로 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海東釋史 藝文志』는 저자가 밝혀진 서책은 저자를 서명보다 앞세워 기입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 외에도 특기할 만한 서지기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附行狀' 등과 같은 딸림자료에 관한 기술, '刊本', '寫本', '活字印刷' 등과 같은 간행의 형식,
외각(外閣) 등과 같은 간행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增修無冤錄』 2권과 그
諺解 2권을 한꺼번에 기술한 것은 원서와 번역서를 함께 기술한 특별한 배열 형식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增訂文獻備考』의 기술형식은 이를 증보하여 조선 고종 광무11(1907)
년에 2백 50권으로 완성된 『增補文獻備考』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增補文獻備
考 藝文考』³¹⁾의 서지기술 형식은 서명과 권수만을 적어 간단히 기술한 것들도 있으나 일반
적으로 서명과 권질, 편찬연대, 저자의 순으로 기술하고 저자에 대하여는 저술의 경위, 출신,
등과(登科)에 관한 사실, 호, 벼슬, 서원의 존재 등을 병기하고 있으며 간혹 서문, 발문 등을
인용하여 저작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저작에 대하여는 저작
의 계보를 열거하고 그 각 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편찬된 『朝鮮圖書解題』의 기술형식은 서명 권수 저자사항 판본의 순으로 먼
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간단한 해설을 붙였다. 해제에는 대개 저술의 동기, 간
행에 관한 사항, 저자의 전기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朝鮮圖書解題』의 예

• 初學字訓增輯 三卷 李植 著 板本

本書は李植が … 增補したるものなり顯宗五年 … 開刊せり 李植字は汝固 … 吏曹判書に

30) 韓致淵 述 『海東釋史』, 第4冊, 卷第42, 「藝文志」 1, (崔南善藏本, 新文版), 13쪽.

31) 「국역 증보문헌비고 예문고」,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至る … 仁祖丁亥に沒す³²⁾

(초학자훈증집, 3권, 이식 저, 목판본

본서는 이식이 … 증보한 것으로 현종5년 … 개간(開刊)하였다. 이식의 자는 여고이며 … 이조판서에 올랐으며 … 인조 정해년에 죽었다)

2) 간략기입목록의 서지기술체계

(1) 불전 목록의 서지기술체계

『大藏目錄』의 예

芥蘆海函 入二十七卷

摩訶般若經(亦名大品般若經) 姚秦三藏鳩摩羅什共僧肇等 譯

伐函 入十卷

大方等大集經賢護分五卷

隋天竺三藏闍那崛多 譯

般舟三昧經(一名十方現在前立定經) 後漢月氏國三藏支婁迦讖 譯³³⁾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예

大華嚴經

…

合論一百二十卷 志寧將通玄論注於經下

合論音義十二卷

恒遂集

不思議論一百卷 前分四十卷流通訖餘未見 德素述³⁴⁾

『大藏目錄』은 경전명을, 『新編諸宗教藏總錄』은 경전명을 일종의 통일서명으로 하여 그 아래 章疎名을 그 권수와 함께 기술하고 다음으로 저작자의 성격을 갖는 역자나 저자를 기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에 앞서 각종의 주기를 부가하고 있다.

정필모의 분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주기는 『大藏目錄』의 경우 판본표시에 관한 것, 경전의 이명(異名)을 밝힌 것, 역자미상이나 출전을 밝힌 것³⁵⁾ 등의 종류가 있으며, 『新編諸宗教藏總錄』의 경우 일반주기, 저자미상주기, 내용주기, 권질(卷帙)주기, 부록주기 등으로 유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⁶⁾

32)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 앞의 책, 26쪽.

33) 守其 校勘, 『再雕大藏目錄』, 鄭駉謨, 『高麗佛典目錄研究』, 앞의 책, 181, 183쪽.

34)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鄭駉謨, 위의 책, 225쪽.

35) 鄭駉謨, 위의 책, 67 - 68쪽.

36) 위의 책, 176 쪽.

위 두 가지 불전목록의 기술사항을 오늘날 목록의 기술사항과 비교한다면 이들 목록에는 대략 서명과 권수, 저자명이 기술부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이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주기사항을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타 간략기입목록들의 서지기술체계

조선 정조 때 편찬된 규장각 장서목록 중 조선본을 소장한 서고(西庫)의 목록인 『西序書目』은 현존하지 않아 그 기술의 형식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지만 『西庫藏書錄』, 『西序書目籤錄』, 『西庫書目』, 『樓下庫書目』 등 서고 장서에 관한 목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남권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각각의 기술 형식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西庫藏書錄』에 포함된 기술 요소들을 오늘날의 목록 기입요소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³⁷⁾

서 명 사 항 : 서명, 서명 잡정보.

형태 및 소장사항 : 권수별 책 수 등 수량 범위 표시, 복본 및 추가본 표시, 결본 표시, 딸림자료 표시

발 행 사 항 : 간행방식 표시(목판본, 활자본, 필사본, 첩본(帖本) 등의 표시), 발행지 표시(출판지나 인쇄지), 발행처 표시(기관이나 관청 표시), 발행년 표시

주 기 사 항 : 판 및 서지적 내력에 관한 사항, 저자 표시에 관련된 사항, 수량 범위에 관련된 사항, 합철물 표시, 지질(紙質) 표시, 장정사항, 印章 및 標識에 관한 사항, '별치'와 같은 보존에 관한 사항

저 자 사 항 : 시대, 지역 표시, 저자명, 저작기능 표시, 부차적 저자 표시

앞서의 『奎章總目』이나 『鏤板考』의 범례에서 제시한 서지기술사항들이 내용에 대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도 대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西庫藏書錄』은 각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평가보다는 서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편찬된 장부식 간략목록이며, 상기한 기술사항들이 모든 목록레코드에 다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사항의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기술의 형식이나 순서도 해제목록과는 달리 일정한 규칙에 따르고 있다. 『西庫藏書錄』의 서지기술사항과 순서에 대하여 남권희는 “서명, 권수, 책수, 판종(版種)구분, 토(吐)의 유무, 지질(紙質), 소장사항(결본표시), 장정, 간행년대, 편저자의 조대(朝代), 편저자명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타 목록에서는 볼 수 없는 전문적인 서지사항을 알려주므로 당시의 목록기술이나 판본학적 개념을 짐작케 한다”³⁸⁾고 하였다.

37)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 變遷 分析: 現存 書目を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 경북대학교, 1983, 157-173쪽.

38) 위의 논문, 64 쪽.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간략기입목록 중 주요한 것으로는 『帝室圖書目錄』, 『學部編輯局書冊目錄』, 『朝鮮古書目錄』, 『古圖書目錄』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의 서지기술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帝室圖書目錄』

書名, 冊數, 缺本數, 書架의 양식에 따라 중서로 기입되어 있다.

周易集解 三 — — 39)

『學部編輯局書冊目錄』

기입 양식은 서명, 전질 책수, 저술자, 何文(언어), 간행처소, 간행년월일로 되어 있으나 서명 아래 책 수와 사용된 본문의 언어구분과 문집류의 저자표시만이 겨우 반정도 기록되어 있다.⁴⁰⁾

『朝鮮古書目錄』

기입양식에 관한 표시 없이 서명, 서적의 존재여부, 별서명, 판본표시, 권책수, 간행처, 저술시기, 저술동기, 목록의 전거, 저술자명, 행을 바꾸어 주기사항 순으로 기입되어 있다.

예) 서적의 존재여부 : (佚書)라고 표시

별 서 명 : 又○○○

판 본 표 시 : 活字本, 乾隆丁酉板本, 正祖朝極大本, 正宗活字本 등

간행 처 표 시 : (原州板), (三陟板), (內閣藏板), (長城縣開刊) 등.

저술시기나 동기 : 李英祖戊申, 高麗朝, 高麗忠肅王四年成, 高麗恭愍王二十年命,

李英祖朝命 등

목록의 전거 : (海東釋史所載), (クラン目錄に見ゆ) 등

주 기 사 항 : 행을 달리하여 ()속에 기입

저술에 관한 것 - (弘文館 纂輯, 校正)

간행에 관한 것 - (東京國書刊行會發行洋裝活版本三冊), (朝鮮雜誌社朝鮮古書刊行會發行洋裝活版本全一冊) 등

말림자료, 합철에 관한 것 - (附○○○), (語錄解合綴) 등

내용에 관한 것 - (鄭汝昌事績), (日本紀行叢書), (金庾信傳) 등⁴¹⁾

39) 宮內部奎章閣圖書課 編, 『帝室圖書目錄』, (隆熙3(1909) ; 서울 : 景仁文化社, 1989(영인)), 1쪽.

40) 南權熙, 『學部編輯局書冊目錄考』, 앞의 논문 7쪽.

41) 朝鮮雜誌社朝鮮古書刊行會 編, 『朝鮮古書目錄』, (明治44(1911) ;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2(영인)) 참고.

『古圖書目錄』

도서명, 권수, 책수, 편저자, 편저년시, 판종, 도서번호순의 양식에 따라 기입하였다.

예) 편저자 : 崔致遠 著, 鄭若鏞 著 張志淵 補, 金川郡 編, 慶尙監營 編, 學部編輯局 編, 高宗 命撰 등(한 저작에 대하여도 두 가지 이상의 기능별로 분리하여 기술하거나 단체명을 저자명으로 채택하였다.)

편저년시 : 高麗時, 朝鮮李太王時, 朝鮮正祖十四年(확인가능 한 범위 내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판 종 : 印(인쇄본), 寫(필사본), 搨(답본) 등을 표시하였다.

도서번호 : 도서의 번호와 더불어 결본의 수를 ()에 넣어 표시하였다.⁴²⁾

3) 서지기술체계의 개요

이상에서 살펴본 목록들의 보편적 기술사항과 기술형식을 간추려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목록은 단일기입의 표목으로 서명을 채기하고 있으며 서명에 관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록에서 서명기입을 했던 것과는 달리 『海東繹史 藝文志』와 같이 저자명을 앞세워 기술한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서명과 더불어 권질의 숫자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체 권질의 숫자는 서적의 완전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면수의 기입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던 때에 문헌의 수량적 특성을 표시하는 중요한 정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해제목록은 그 해제에서, 간략기입목록에서는 주로 마지막에 저자를 기술하고 있다. 해제목록의 경우는 편찬의 연대와 함께 저자의 벼슬, 향리, 심지어 인척관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저자에 대한 식별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헌의 내용을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撰, 纂, 輯, 編, 著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저술의 특성을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록에서 서명, 권질, 저자 등의 3가지 기입요소를 기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외에도 목록간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기술사항들이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함되었다.

- 重刊 등의 판과 서지적 내력에 관한 표시
- 발행지, 발행처(內閣 등), 발행시기(王朝名, 廟名 등과 더불어 干支를 부기하는 등)에 관한 표시.

42)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앞의 책 참고.

- 寫本, 刊本, 活字本, 活印, 木版本 등의 판본에 관한 표시
- 장정에 관한 사항
- ‘附○○’ 등과 같은 부수적 딸림자료의 표시
- 인쇄에 사용한 종이의 종류나 질에 관한 정보 등.

넷째, 구한말에서 일제 초기에 간행된 목록들도 서지기술사항이 비교적 다양해지고 기술수준이 상세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 틀은 『西庫藏書錄』과 같은 그 이전 목록들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참서관실에서 편집 간행한 『古圖書目錄』은 규장각을 비롯한 왕실문고 소장 도서를 중심으로 수집된 宮內府 圖書課(구 奎章閣 圖書課) 소관의 우리 나라 고도서를 이관 받아 정리한 것으로 기술의 형식이 더욱 정형화되었을 뿐 아니라 서명, 권책 수 다음에 바로 저자사항이 기술되고 그 외 편찬연대, 판종 등의 서지사항들이 그 다음에 기술되고 있다. 어떤 목록규칙을 적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때 규장각도서의 근대적 정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⁴³⁾ 그 형태로 보아 이 즈음부터는 서양식 목록규칙의 영향을 입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과 같이 성문화된 목록규칙이 없었던 이 시기에도 목록들 간에 기술사항, 형식이나 순서 등에서 서로 차이는 있었으나 목록 편찬을 위한 보편적 원칙이 통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 (1923년경부터 1954년 이전까지)

우리 나라보다 먼저 개항하여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일찍부터 서양의 목록규칙을 사용하거나 그 체계에 영향을 입은 성문화된 목록규칙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목록규칙이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늦어도 조선총독부도서관 설립 이후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된 1923년경부터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로 보며 그 사정과 특성을 알아본다.

1. 목록규칙의 사용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목록규칙 사용과 관련하여 이춘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3) 田鳳德, 앞의 글, 37쪽.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2호)

총독부도서관에서도 초기에는 위의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을, 그리고 1932년 이후는 『和漢圖書目錄法』(案)을 각각 참고하여 목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양서의 경우는 ALA목록규칙을 약간 수정한 『洋書著者書名目錄編纂略則』에 의해 목록하는 것이 당시 일본 도서관계의 일반적인 추세였으므로 총독부도서관에서도 양서목록만은 동서와 달라하고 있었다.⁴⁴⁾

다른 한편 일제시대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아홉 차례의 도서관 관계 강습회가 개최되었으며 강습회의 목록법 관련 강의요강 일부가 《朝鮮之圖書館》에 전해진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회 圖書館事項講習會 講義要項>

和漢書目錄法(朝鮮總督府圖書館司書 島崎末平)

… 서명목록과 저자명목록 (1) 서명목록 = 화한서는 옛부터 서명표목을 기본으로 함, 일본도서관협회제정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 … (2) 저자명목록 = 양서는 옛부터 저자명표목을 기본으로 함, 명치 이후의 출판도서는 저자명표목이 필요, … 표준적 저자명목록편찬 규칙 제정의 필요, 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 和漢書目錄編纂概則修正案.⁴⁵⁾

洋書目錄法講義要項(京城帝國大學司書 關野眞吉)

ALA, *Catalog rules*(1908)의 쪽수, 조항번호 등이 포함된 목차를 게재하고 있다.⁴⁶⁾

… 현재 구미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칙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은 ALA목록규칙으로 … *Catalog rules : author and title entries*라고도 표제되었으며, *Anglo-American code of cataloguing rules*라고도 부른다 … 종래 일본의 양서목록편찬에는 거의 이 규칙이 채용되었고, 또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에서 제정한 『和漢書目錄規則』 및 최근 청년도서관원연맹이 발표한 『日本圖書目錄法案』도 말하자면 ALA목록규칙을 골자로 한 것이다.⁴⁷⁾

또한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도서 정리상황에 대하여 이춘희는 당시에 작성된 카드목록 등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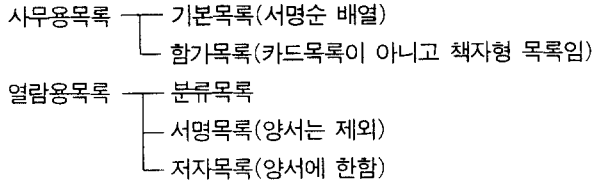
목록의 편성이나 카드의 작성에 있어서도 분류에서와 같이 신서, 고서, 양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취급하였으며 목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4) 李春熙, 『國立中央圖書館의 資料整理 現況과 그 方向에 관한 研究』, 1978政策研究課題報告書, 22쪽.

45) 『圖書館事項講習會』, 《朝鮮之圖書館》, 創刊號(1931.9), 56-57쪽.

46) 위의 글, 58-59쪽.

47) 關野眞吉, 『洋書目錄法序說』, 《朝鮮之圖書館》, 第6卷 第2號, (1937.12), 28쪽.



사무용목록의 기술사항을 보면 동서와 고서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1행에 서명을 표목으로 내준 다음 제2행에 저자표시 제3행에는 출판연도와 판차, 제4행에는 권책수, 장정, 크기, 삽도, 페이지수, 제5행에는 발행지, 발행소, 제6행에는 가격과 수입년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있다 ...

한편 서서의 경우는 ALA규칙에 근거하여 저자명 주기입 방법을 택하고 있었음으로 동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기술사항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⁴⁸⁾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1910년의 일본도서관협회 편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과 1932년의 일본도서관협회 화한서목록법조사위원회 편 『和漢圖書目錄法』⁴⁹⁾(이하 『和漢圖書目錄法』(案)이라함), 1897년 동경제국대학부속도서관에서 만든 『洋書著者書名目錄編纂略則』 등의 목록규칙과 카드목록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지위나 강습회 개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목록규칙들이 당시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1876(명치9)년 田中不李麿 일행이 미국교육사정시찰단으로 도미한 바 있다. 이때 시찰단이 미국에서 입수한 자료 중 “미합중국 공공도서관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부에는 카터의 사전체목록편찬규칙이 발표되어 있었다.⁵⁰⁾

그러나 도서관정책은 명치 후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실하게 되는데 명치25(1892)년 西村竹間이 편한 『圖書館管理法』의 제4장에 수록된 「目錄編纂法」이나, 명치26(1893)년 일본문고협회에 의해 반포되고 명치33(1900)년 간행된 문부성 편 『圖書館管理法』의 부록으로 게재된 『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은 서양에서 도입된 목록규칙에 따라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西村竹間の 「目錄編纂法」에서는 카드목록을 제창하고 있으며⁵¹⁾ 문부성 편 『圖書館管理法』의 집필자인 田中稻城은 명치21년부터 23년까지 구미에 유학하여 ALA의 *Condensed Rules for an Author and Title Catalog*(1883) 등에 대하여 상당히 연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²⁾

48) 李春熙, 앞의 보고서, 23-26쪽.

49) 『和漢圖書目錄法』, 田中敬 『和漢書目錄法: 田中敬著作集』, (東京: 早川圖書, 昭和14(1939))의 부록으로 게재되어 있음.

50) 志村尙夫, 『目錄學序說』, 補訂版 (東京, 學藝圖書, 昭和56(1981)), 119쪽.

51) 위의 책, 120쪽.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이나 『和漢圖書目錄法』(案)은 일본문고협회의 1893년 『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을 기초로 한 것이며 동경제국대학부속도서관의 『洋書著者書名目錄編纂略則』은 ALA의 *Condensed Rules for an Author and Title Catalog*(1883)을 참고한 것이다. 따라서 일제 초기 우리 나라의 도서관계에는 일본의 목록규칙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서양의 목록규칙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후기에는 강습회 등을 통하여 ALA의 AA Code(1908)와 같은 목록규칙들이 직접 소개되기도 하였다.

일제 후기에는 저자명기본기입의 목록규칙도 점차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31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도서관강습회의 목록규칙 관련 강의요강을 보면 서명표목을 기본으로 하는 서명목록과 저자명을 표목으로 하는 저자명목록을 구분하고 있으며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의 목록규칙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자명기본기입 원칙의 목록규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점차 증가해 가는 서양서의 편목을 위한 배려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일본의 목록규칙이 동양의 전통적인 서명기본기입방식에서 영미계 목록규칙의 저자명기본기입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전통적 목록과 영미계 목록규칙 사이에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기본기입의 측면에서 일본목록규칙의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에서 도입된 목록규칙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확실히 서명기본기입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었던⁵³⁾ 1893년 일본문고협회의 『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을 개정한 1910년의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은 그 원칙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와 청년도서관원연맹에 의해 영미계 목록규칙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의 방침은 전통적 서명기본기입원칙의 목록규칙에 변화를 가져왔다. 1932년의 『和漢圖書目錄法』(案)은 저자와 서명 중 어느 것을 기본기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공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본기입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의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和漢書目錄規則』과 청년도서관원연맹의 『日本目錄規則』, 1942년판이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의 목록규칙으로 완성되고, 청년도서관원연맹의 『日本目錄規則』은 전후 『日本目錄規則』 1952년판에 의해 계승됨으로써 일본 목록규칙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목록규칙이 저자명기본기입원칙으로 변화하는 추세는 도서관 강습회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도 전하여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나라에서도 도서관에 따라서 양서목록 작성에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위의 책, 121-122쪽.

53) 後藤純郎 編 『分類と目錄』,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4), 192쪽.

2. 『新書部分類目錄』 편찬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新書部分類目錄』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신서부의 기본목록으로⁵⁴⁾ 1937년에 간행되었으며 그 편성과 기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편성체계

그 例言에서 “목록기입의 양식은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日本圖書館協會 제정의 目錄編纂規則에 준거했지만 간혹 약간의 취사절충을 가한 것도 있다”⁵⁵⁾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목록은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이나 『和漢圖書目錄法』(案)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목록 편성체계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목록의 서두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의 기본목록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과 重出, 分出 記入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⁵⁶⁾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이미 복수기입의 목록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록의 배열은 전통적 사부분류법과는 전혀 다른 신서부분류표에 따랐다. 신서부분류표는 제1문에서 10문까지로 구분하고 각 문에는 두 개씩의 주제를 배치함으로써 전체 20개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에 조선문(朝鮮門)을 따로 두고 있다. 동일분류강목내의 도서는 서명의 오십음순으로 배열했으며 한글은 오십음과 완전히 구별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보아 이때는 이미 한글의 자모순 배열체계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책으로 50음순 색인을 첨부하여 도서 검색의 편이를 도모하였다.

2) 서지기술체계

목록기입사항의 순서는 “서명 저자명, 간년, 판수, 판종, 크기, 발행지, 발행소, 도판(필요한 것에 한해서), 책수 및 분류기호의 순으로 한다”고 하였다.

목록 기술의 예)⁵⁷⁾

	冊	分類記號
일반도서 : カントの實踐哲學	1	1-00-763
安倍能成著 大正13 小 東京 岩波書店		

54)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目錄』, 上卷, (京城: 朝鮮總督府圖書館, 昭和12(1937)), 2쪽.

55) 위의 책, 4쪽.

56) 위의 책, 같은 쪽.

57) 위의 책, 1쪽.

번역서 : 宇宙及人生 原名, 意志及心識としての世界 3 1-00-ア66
獨國, ショーペンハウエル著 増富平藏譯
大正14.15 2版 小 東京 玄黃社

참조기입 : 意志及心識としての世界 1-00-ア66
宇宙及人生ヲ見ヨ

분출기입 : 칸트哲學と唯物史觀 10-01- 69
土田茂(杏村)著 昭和10(土田杏村全集第4卷)

그 이전의 목록들에 비하여 『新書部分類目錄』은 현대적 목록규칙의 기술사항이나 형식에 훨씬 더 근접하고 있으며 카드목록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新書部分類目錄』의 특징을 보면 ① 서명을 표목으로 하고 정보원에 나타난 형태대로 채기하고 있으며 원서명, 딸림자료 등은 서명에 연이어 기술하였다. ② 저자사항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번역서의 경우는 저자의 국적을 기록하였다. ③ 출판연대, 판차, 책의 크기, 출판지, 출판사의 순으로 기입하였다. 책의 크기는 大(四六倍版 이상) 中(菊版) 小(四六版 이하)로 구분하였다. 분출기입은 서명, 저자명, 간행년도, 판수, 총서명만 기입하였으며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서명으로부터 표목으로 채택된 서명으로 참조 기입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각 목록레코드에는 책수와 청구기호가 기입되어 있음도 볼 수 있다.

3. 『朝鮮東書編目規則』 제정

1) 제정의 경위

1931년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도서관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박봉석이 6.25 동란 중 납북될 때까지 이 땅의 도서관계에 남긴 업적은 지대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문헌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특히 분류표나 목록규칙과 같은 도구의 편찬은 빠트릴 수 없을 것이다.

박봉석은 해방 후 국립조선도서관학교의 교재로 목록규칙을 초안하였으며, 이 초안을 교정 등사하여 1947년에 개최된 제1회 도서관 강습회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⁵⁸⁾이다.

58) 朴奉石 編 『東書編目法 : 講義用草案』, ([서울 : 국립도서관, 檀紀4280(1947)])

이 초안을 일본의 『和漢圖書目錄法』(案)과 면밀히 대조해보면 구성체계가 거의 같을 뿐 아니라 규칙의 조문 중 상당부분은 『和漢圖書目錄法』(案)을 순서를 조절하여 그대로 번역하거나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극히 일부의 내용만 침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은 『和漢圖書目錄法』(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947년 도서관협회 총회에서 전국 통일편목규칙제정이 결의되었고 박봉석 자신이 규칙제정위원의 한사람이 되어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을 기초로 1948년 10월 『朝鮮東書編目規則』(KCR)⁵⁹⁾을 편찬하였다. 『朝鮮東書編目規則』은 박봉석이 납북된 후인 1954년 6월 국립도서관에서 개정 발행⁶⁰⁾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朝鮮東書編目規則』 1948년 판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48년 판은 박봉석 자신이 개편한 최종판이며 그 이후의 개정판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2) 규칙의 구성

第1章 範圍及效用, 第2章 總則, 第3章 書名, 第4章 著者, 第5章 出版事項, 第6章 對照事項, 第7章 附註事項, 第8章 事務事項, 第9章 書票記入法, 第10章 書票配列法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附表로는 書票記入例, 略語表, 國名表, 漢字標記法, 日本文字標記法, 東西歷代干支年表 등이 수록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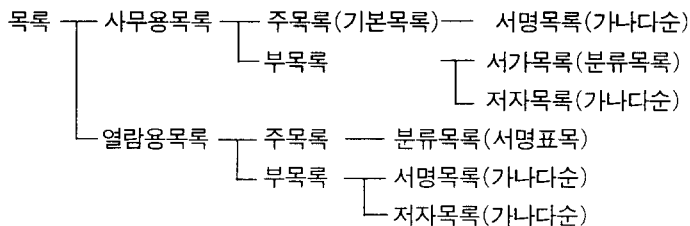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구성 면에서는 제1장 범위 및 효용, 제7장 부주사항, 제8장 사무사항이 추가된 것 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각 장에서 절의 구분과 배열이 세분 정비되었으며 그 내용도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에 비하여 증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칙에서는 목록의 편성체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에서 목록편성에 참고케 하고 있다.

3) 편성체계

총칙에서 목록의 편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59)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서울: 國立圖書館, 檀紀4281(1948))

60)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KCR』, (서울: 國立圖書館, 檀紀4287[1954])



위와 같이 구분하였으나 카드는 서명을 표목으로 하는 것과 저자명을 표목으로 하는 것의 두 종류로 작성되며 분류목록은 서명을 표목으로 하는 카드에 분류참조를 더하여 분류순으로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용목록과 열람용목록의 구분, 서명목록과 저자목록 각각에서는 분립기입카드나 참조카드(분류 참조카드, 발음 참조카드, 판칭 참조카드) 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세한 카드목록의 편성체제로 보아 목록의 편성에 관한 깊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표목에 관한 원칙

일반적으로 『朝鮮東書編目規則』은 목록의 편성체계에서 보듯이 서명목록이 주목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서명주기입의 목록법이라고 한다.⁶¹⁾ 그러나 이 규칙은 '제3장 제2절 서명표목'에서 "일반도서는 서명의 통칙에 의하여 서명을 채택하여 차(此)를 표목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역시 '제4장 제7절 저자표목'에서도 "저자서표(카드)는 저자의 본명으로써 표목으로 함"이라고만 했을 뿐 기본표목이나 주(기본)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和漢圖書目錄法』(案)의 표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표목에 관한 『和漢圖書目錄法』(案)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이렇게 『和漢圖書目錄法』(案)의 표목에 관한 원칙을 답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송돈지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이미 그 당시 목록계의 세계적인 동향은 저자기본기입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일본 내에서도 가혹한 비판을 받고 있던 『和漢圖書目錄法』이 모체가 되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짐작컨대 일제 말기에 있어서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전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 같기도 하나, 서명이 고유명사로 굳어질 정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도서의 첫째가는 식별요소인 서명을 앞세워 기입하는 서명주기입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⁶²⁾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일제시대부터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의 목록규칙이 우리 나라

61) 國立中央圖書館, 앞의 책, 287쪽.

62) 宋敦子, 『朴奉石의 朝鮮東書編目規則 研究』,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1985, 54-55쪽.

에 소개된 바 있었고 일본에서도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의 목록규칙이 편찬된 바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후자 측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부록으로 수록된 서명목록과 저자목록의 기입 예를 보면 서명과 저자를 각각 표목으로 삼아 따로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기입카드를 단위카드로 하여 기본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타 접근점을 부출표목의 형식으로 기입하는 기본기입방식과는 다르며 따라서 기본표목이나 단위카드의 개념이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서지기술체계

기술사항의 종류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서명(혹은 저자, 피전자)
- ② 저자(혹은 서명, 서명 및 저자)
- ③ 출판사항(간본인 경우 : 1.출판지, 2.발행자, 3.발행년기, 4.판수, 5.판종. 사본인 경우 : 1. 서사)
- ④ 대조사항(1. 권수·책수, 2. 장정, 3. 대소, 4. 매수·장수·도판수)
- ⑤ 부주사항(1. 부기류(서명의 이명 등), 2. 주기류, 3. 참고류, 4. 내용세목)
- ⑥ 사무사항(수서일자, 등록번호, 구입처 또는 기증자, 가격 등)

부록의 목록카드 기입 예를 보면 서명에는 권차, 기타서명, 부서명 등이 함께 기술되며, 저자사항은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 『新書部分類目錄』에서처럼 저자의 국적을 병기하고 있다. 그 외 기술사항들은 판차의 기입 위치나, 대조사항의 기술 순서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오늘날 영미목록규칙의 기술사항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욱이 그 서문에서 “본서는 편자가 반 사십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선(亶)한 실무를 통해서 거둔 풍부한 경험과 꽃임 없는 연핵(研覈)으로 얻은 확실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성서한 그것인 만큼 … 세계의 도서관국인 미국의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으로 섭취(攝取)하는 동시에 독일의 과학적 원리를 가급적 살려서 우리 국정(國情) 및 정신에 적합한 것을 만들고저 고심한 자취가 농후함을 간취(看取)할 수 있다”⁶³⁾라고 하였듯이 이 규칙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나라 도서관의 실정과 서양의 목록규칙을 참고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목록규칙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목록 편성체계에 대한 상세한 규정, 기술규칙의 체계적 배열, 각 기술사항의 유형별 기술방법, 규칙과 부록의 카드기입 예와 연계한 참조 등은 해방 후 혼란하고 분주했던 2-3년 사이에 편찬된 목록규칙으로는 과분할 만큼 정비된 것이었다.

다만 당시 영미계 목록규칙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63)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앞의 책, 1쪽.

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였고, 해방 이전부터 이미 단위카드방식이 소개된 적이 있었음⁶⁴⁾에도 불구하고 단위카드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겠다.

V. 맺는 말

우리 나라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을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 국제 표준화기, 자동화목록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와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전통적 단일기입목록 시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목록은 사부분류법을 비롯한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된 단일기입의 책자형 목록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편찬된 『朝鮮圖書解題』 등에서는 색인의 형식이긴 하였지만 서명의 자모순에 의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시작하였다.

분류체계는 불전의 목록을 비롯한 몇몇 특수한 경우와 구한말 서구문물의 도입 이후에 편찬된 일부 목록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부분류법이나 사부분류법을 일부 개수한 것이었다.

서지기술체계를 간추려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명 및 서명의 부가정보와 더불어 권질의 숫자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2) 해제목록은 그 해제 내에서, 간략기입목록에서는 주로 마지막에 저자를 기술하였다.
- 3) 기타 판과 서지적 내력에 관한 표시, 발행에 관련되는 사항, 판본 표시, 장정, 딸림자료, 종이의 종류에 관한 부가적 기술사항들이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함되었다.
- 4)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에 편찬된 목록들의 서지기술사항이나 기술 양식을 살펴볼 때 점차 서양식 목록규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서양식 목록규칙도입 시기는 일제강점기라는 정치 사회적 특성 때문에 주로 일본에 의해 주도되거나 일본의 목록규칙에 영향을 입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영미계 목록규칙을 도입하여 일본에서 편찬한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 『和漢圖書目錄法』(案) 등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함으로 이때부터 이러한 목록

64) 關野眞吉, 앞의 글, 같은 쪽.

규칙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미계 목록규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양서 목록을 위하여 AA Code 등의 영미계 목록규칙과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이 도서관 강습회 등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1937년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편찬한 『新書部分類目錄』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한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 『和漢圖書目錄法』(案)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이며, 그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 당시에는 이미 복수기입의 목록을 편성하였음이 확실하다.

해방 이후 박봉석에 의해 편찬된 『朝鮮東書編目規則』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규칙으로는 대단히 정비된 것이었지만 단위카드방식이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의 국제적 조류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서양식 목록규칙 도입과 더불어 동양적 목록학의 전통을 서서히 상실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한적목록의 주류로서 서지기술사항과 함께 문헌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압축된 서술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해제목록은 서양식 목록규칙이 도입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정형화된 서지기술사항 중심의 기술목록이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목록규칙에서는 분류기호나 주제명표목을 내어주는 외에 주기사항으로 내용과 관계되는 사실들을 일부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도서관의 목록실무에서는 목차 정도를 주기 하는 외에 내용의 요약이나 평가에 관한 정보는 거의 기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카드의 공간 문제, 문헌 양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목록을 통하여 문헌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목록학이나 도서관의 목록업무가 단순한 기능으로 오해되는 빌미까지도 제공하게 되었다.

문헌의 내용과 평가는 목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전자매체의 도입으로 인한 기술공간 문제의 해결과 분담목록이나 중앙집중식 목록으로 인한 단위 도서관의 편목업무 경감은 목록에 문헌의 내용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였다. 실제로 KORMARC이나 US MARC포맷의 520필드는 문헌내용의 요약이나 초록, 해제를 기술하도록 설정되어있다.

이러한 목록환경에 즈음하여 전통적 해제목록에서 책의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하는 형식은 대량 수입되는 문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다시 한번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